

##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위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 내용구성과 활용 및 효과에 대한 실천가의 인식 연구\*

유영림\*\* · 한정은\*\*\*

###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위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위해 개발된 교재(매뉴얼·활동북)를 활용하여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진행하거나 보조 인력으로 참여한 3개 기관 실무자 9명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 및 효과를 실천가의 인식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에 대한 상위 주제 ‘발달장애인 맞춤 교재의 질 높은 구성과 정보에 비해 대상자별 활용에 차이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효과에 대한 상위주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장애인 자립과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후 교재 보완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인지정도를 고려한 표준화된 콘텐츠 연구·개발,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확대, 프로그램 실천가의 충분한 사전준비 및 슈퍼비전 필요, 개별화된 지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통합적 자립지원체계구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발달장애인 자립, 포커스그룹인터뷰

\* 이 논문은 2018년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 주저자(ylyou@cdu.ac.kr)

\*\*\*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교신저자(hjeun57@hanmail.net)

## I. 서론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하여 법과 정책이 새롭게 제정·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탈시설화 정책, 지역사회중심 정책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있다. 특히 다른 장애유형보다 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정희·김은혜·인진숙, 2010).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 장애인 2,511,051명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7.8%로 195,283명이며 자폐성장장애인은 0.9%로 22,853명이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장애를 갖는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8.7%인 218,136명인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26.6%, 고용율은 23.5%, 실업률은 11.6%이다. 발달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인구 실업률의 3배, 전체 장애인 실업률의 2배가량 높다. 또한 발달장애인 고용은 노동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58,024명 중 15,355명이 장애인 관련 기관들의 고용서비스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는 발달장애인 자립의 핵심인 경제활동 참여가 양적·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남용현·김기룡·송남영, 2017). 남용현 외(2017)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간 역할과 범위의 불명확성, 전달체계 간 연계 부족, 인적 지원제도 취약, 생애주기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자립생활은 인간의 마땅한 권리로서 발달장애인도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마련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성태, 2017).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 실현의 중요한 과정인 미래 계획 및 준비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공동체 형성을 원조하고, 자조집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전문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을 변화

시키는 등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유수진, 2016).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애인의 미래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장애인의 꿈과 행복한 삶을 확인하고, 미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 인간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 주거, 재정, 법, 교육, 문화(여가), 보건(의료), 직업, 결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계획을 수립하는 평생계획(Permanency Planning)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접근이 그 예이다. 이동귀(2004)는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평생계획을 위한 법률적 측면과 재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박인용(2011)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가족의 역할에 대해 장애자녀 부모의 이해를 돕고자 발달장애 자녀의 행복과 미래설계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행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엠마우스복지관(2012)에서는 사람중심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교재를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2014)은 장애자녀의 평생계획을 위한 부모교육 행복디자인이라는 사업 연구를 통해 장애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삶 전반의 평생계획 설계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자녀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장애인 대상이 아니라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학계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미래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김정희 · 손인봉 · 이은영, 2009),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생활영역별 어려움의 심각성 정도 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하였다(성치상 · 오봉욱, 2011). 더불어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미래설계에 대한 실태와 욕구조사도 이루어졌다(심석순 · 권오형 · 장혜림 · 이은정, 2013; 이복실 · 박주 · 이윤희, 2013).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미래설계 실태와 욕구를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의 돌봄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후, 부모 사후 돌봄과 부모의 노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평생교육에 관한 제언도 중요시되고 있었다. 장애인의 일상적 삶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평생교육, 건강의료, 주거, 가족 등의 주요 정책적 영역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연구가 수행되었다(최복천·변용찬·황주희·김미옥·박희찬·심석순·오다은, 2016). 평생계획과 관련하여 평생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적장애 자녀를 위한 부모의 평생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적지지, 가족수입, 개인능력 임파워먼트, 자기결정 임파워먼트, 보호자연령 등이 있었다(서남숙, 2009). 김주래(2010)의 연구에서는 자폐성 장애 자녀의 평생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경제력과 양육부담이 평생계획의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가구형태, 양육부담, 평가적지지가 평가계획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미연(2009)의 지적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에서는 평생계획의 중요성을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가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보호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남연희·송성권, 2005; 최지선·이선주·손주영, 2009; 강미자·강창욱, 2013; 민경명, 2016), 이민희(2018)의 연구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의 개별화된 생애주기에 맞춰 객관적으로 평생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설계 준비수준과 미래 준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평생준비진단지표를 개발하였다.

한편, 발달장애인 평생계획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따라 실천현장에서 실천적 접근과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국(CDDS, 2001; MDCH, 2011)과 캐나다(PDD, 2004), 아일랜드(NDA, 2014), 호주(DADHC, 2008)에서는 인간중심계획이나 평생계획 접근의 실천 현장에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생애주기별로 평생계획에 반영하고 전반적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미래 설계하는 과정에 관심이 높아지며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 PPP)라는 이름으로 실천적 접근이 이루어졌다(성민사회복지연구소, 2011;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성민사회복지연구소와 성민복지관이 2010년부터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지원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평생과정설계 개념을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정립하여 평생과정설계를 시행하였다. 이후 유수진(2016)은 평생과정설계 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인지차원과 행동차원 영역 모두에서 개인적, 사회적 자립역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진(2016)은 연구에서 장애인복지관과 유관기관, 전환교육기관 등이 실천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평생과정설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를 처음으로 시도한 성민사회복지연구소와 성민복지관은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년간의 프로그램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매뉴얼, 활동북)’를 제작하였다. 이에 그 동안 학계가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에 필요하다고 논의한 영역들과 실천적 경험을 반영하여 만든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 및 교재효과를 점검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위해 개발한 교재 매뉴얼과 활동북을 직접 활용하고 그 효과를 관찰한 각 기관의 실천가 집단을 대상으로 교재 내용구성과 활용 및 교재 효과에 대한 실천가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질문이다. 첫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에 대한 실천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효과에 대한 실천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 II.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평생과정설계 준비프로그램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평생과정설계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평생과정설계를 실행하는데 있어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평생과정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꿈을 확인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생과정설계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생과정설계는 인간중심계획의 관점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당사자주의를 핵심으로 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생과정설계는 정상화

및 사회적 역할 가치, 자립생활, 강점관점, 사회적 모델, 당사자주의, 임파워먼트를 실천관점으로, 자기결정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팀 협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지역사회기반의 원칙을 실천원칙으로 삼고 있다(성민사회복지연구소·성민복지관, 2013).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평생과정설계의 주체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과정설계의 기본 개념, 자기결정, 긍정적 자기인식(강점알기, 행복과 꿈알기), 지역사회 내 자원 및 옹호자 알기, 평생과정설계 이해, 영역별 이해 및 활동(8가지 영역: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결혼, 직업, 소득재정, 주거, 법), 예비설계서 작성 및 마무리로 구성된다.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총 23회기로 이루어지며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세부내용

구분	회기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내용
Part 1. 행복한 삶 준비하기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관계형성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소개 참여자 간 긍정적 관계 형성
	2	자기결정	자기결정 이해	자기결정의 중요성 이해 권리와 책임, 의무 인식
	3	특성, 강점	긍정적 인식 강화 지지를 통한 관계 강화	자신의 특성 이해 자신의 강점 인식
	4	행복·꿈· 옹호인	삶의 비전 수립 자원망, 옹호자 알기	자신의 행복과 꿈 인식 지역사회 내 지원망 및 옹호인 이해
	5	평생과정설계 개요	생애주기, 자립 및 평생과정설계 이해	생애주기, 자립의 의미 알기 평생과정설계 개념, 필요성, 영역 이해
Part 2.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8가지 영역	6	평생과정설계 영역별 이해 및 연계활동	교육설계 이해	교육설계 의미 및 필요성 이해
	7		교육설계 활동	교육설계 활동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파악 및 방문)
	8		보건의료설계 활동	보건의료설계 활동 (건강검진/평생건강관리센터)
	9		보건의료설계 이해	보건의료설계 의미 및 필요성 이해
	10		문화여가설계 이해	문화여가설계 의미 및 필요성 이해
	11		문화여가설계 활동	문화여가설계 활동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방문)

구분	회기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내용
	12		결혼설계 이해	결혼설계 의미 및 필요성 이해
	13		결혼설계 활동	결혼설계 활동 (데이트 매너 교육 및 가상데이트)
	14		직업설계 이해	직업설계 의미 및 필요성 이해
	15		직업설계 활동	직업설계 활동 (취업 중인 선배와의 만남)
	16		소득재정설계 이해	소득재정설계 의미 및 필요성 이해
	17		소득재정설계 활동	소득재정설계 활동 (소비계획 수립 및 지출활동)
	18		주거설계 이해	주거설계 의미 및 필요성 이해
	19		주거설계 활동	주거설계 활동 (독립주거 선배 집 및 그룹홈 방문)
	20		법적설계 이해	법적설계 의미 및 필요성 이해
	21		법적설계 활동	법적설계 활동 (피후견인 만남, 성년후견지원기관 방문)
Part 3. 행복한 삶 계획하기	22	미래설계서	미래설계서 작성	예비 미래설계서 작성
	23	수료식	꿈선포식	꿈 선포 및 수료(보호자 등 초청)

〈자료출처: 유수진(2016). 〈표3-2〉 평생과정설계 준비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

### Ⅲ. 연구방법론

#### 1.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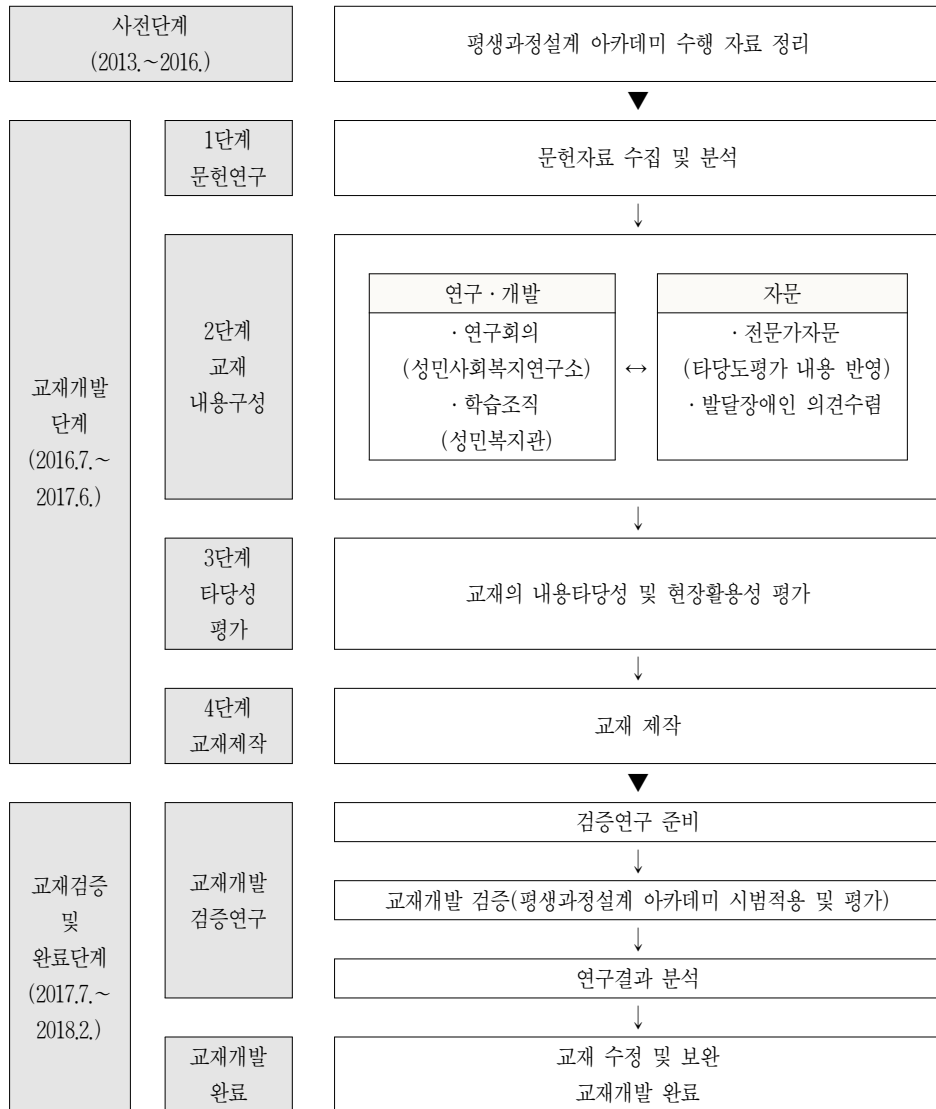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립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으로(유수진, 2016)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성민복지관과 성민사회복지연구소에서 5년간의 연구와 실행을 통해 효과성 검증 및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현장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2015년부터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체계화 및 보급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3년의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아

카데미 매뉴얼 및 활동북이 제작되었다. 이에 따라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보급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실천현장에서 매뉴얼 및 활동북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매뉴얼 및 활동북은 성민사회복지연구소와 성민복지관의 학습조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재개발의 전반적인 기획 및 과정별 진행, 교재 집필 및 수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가 자문에 참여하였다. 발달장애인은 활동북에 사용된 단어나 문장, 이미지 등이 쉽게 이해되는지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내용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교재 내용구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1차 완성본에 대해 장애인복지 현장전문가 3인,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분야 학계 전문가 3인에게 아카데미 매뉴얼 및 활동북이 현장 활용에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1차 검증이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뉴얼 및 활동북이 제작·완성되었고, 이에 대한 2차 검증을 위해 실천현장에서 매뉴얼 및 활동북을 활용하여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개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개발 과정

## 2.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의 내용구성 및 활용과 교재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재를 직접 활용한 현장실천가들을 대상으

로 사전에 제작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연구참여자의 집단 역동성을 통해 더 활발히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해줄 수 있는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지 못한 연구참여자는 질문지를 우편으로 수령한 뒤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우편 질문지 질문내용은 교재 활용을 통해 진행한 프로그램 경험을 기반으로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에 대한 평가(도움이 된 점, 아쉬운 점, 보완점 등) 및 교재효과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아카데미 교재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진행한 실천가를 중심으로 역동성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교재 내용구성 및 활용부분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영역별로 논의가 되었고 전체적인 부분과 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빚어진 발달장애인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각 기관의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담당자 위주로 평가되었다.

## 2) 연구참여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 및 교재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질적연구(포커스그룹인터뷰(FGI)·평가설문) 참여자는 총 9명이다. FGI 참여자는 A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이번 평생과정설계 교재개발 연구에 참여한 현장실천가 7명으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진행하거나 보조 인력으로 참여한 실무자이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무자는 총 8명이었는데, FGI가 여름휴가 기간에 진행되어 휴가일정이 잡혀있던 실무자 1명은 부득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평가설문 참여자는 B장애인 복지관 실무자와 C특수학교 교사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인력이다. 이들은 거리적으로 먼 지역에 거주하여 A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된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가 어려워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와 같은 내용의 평가질문지를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다. 질적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구체적인 명칭이나 호칭 대신 무작위로 A1 ~ A7, B1, C1으로 지칭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질적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기관	참여 인원	분류 기호	연령 (성별)	경력	담당 프로그램 및 역할
FGI	A 장애인 복지관	7명	A1	40대(여)	14년	Part 1, Part 3 강사 및 프로그램 담당자
			A2	30대(여)	10년	Part 2 교육설계 강사
			A3 (연구불참)	30대(여)	9년	Part 2 보건의료 및 직업설계 강사
			A4	40대(여)	4년	Part 2 소득재정 및 문화여가설계 강사
			A5	30대(여)	4년	Part 2 결혼설계 강사
			A6	30대(여)	3년	Part 2 법적설계 강사
			A7	40대(여)	1년	참여자그룹 담당 및 프로그램 보조진행자
			A8	30대(남)	1년	프로그램 보조진행자
평가 설문	B 장애인 복지관	1명	B1	20대(여)	5년	Part 1 ~ 3 강사 및 프로그램 담당자
	C 특수 학교	1명	C1	30대(여)	7년 (특수 교사)	Part 1 ~ 3 강사 및 프로그램 담당자

### 3) 자료분석

FGI 질적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Ryan and Bernard(2002)의 FGI 질적연구 자료 분석 4단계를 적용하였다. 1단계는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을 전사(Transcripts)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도 이에 맞추어 가장 먼저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관장한 실천가와 영역별로 담당하고 진행한 실천가들의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다. 2단계는 전사된 자료를 본 연구 질문에 따라 의미단위들을 부호화하는 단계이다(Coding). 본 연구자료도 연구질문 2개(교재 내용구성과 활용에 대한 실천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교재효과에 대한 실천가의 인식은 어떠한가)에 맞추어 의미단위들을 부호화하였다. 3단계는 부호화된 의미들로 구성하는 지도를 그리며(Mapping) 의미단위를 범주화하는 단계이다(Categorizing). 본 연구자료 분석 3단계에서도 부호화된 의미단위들을 범주화하여 하위범주를 구성하였

다. 4단계에서는 범주화된 하위주제들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상위주제(Themes)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4단계 최종단계에서도 2개의 연구질문에 맞추어 상위주제를 각각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공동 연구자들의 상호 검토와 수정 후 최종 확인되었다. FGI 자료분석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FGI 자료분석 과정

#### 4) 질적연구 윤리성과 엄격성

연구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참여 철회권 보장, 자발적 연구동의 등의 질적연구 윤리 원칙에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Klockars, 1977; Reiman, 1979; Glesne and Peshkin, 1992).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및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충분한 이해가 확인 될 시 녹취 허용을 포함한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Lincoln and Guba(1985)가 질적연구의 가치를 위해 연구의 신뢰가치성(Trustworthiness)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처럼 본 연구 또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학 박사 1명,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연구원 1명, 사회복지학 석사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FGI 질문 개발, FGI 실행, FGI 자료분석 및 기술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적극

적으로 상호참여하고 엄격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질적연구의 신뢰가치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 도출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Thick description)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 발달장애인 맞춤 교재의 질 높은 구성과 정보에 비해 대상자별 활용에 차이가 있음(교재의 개별화 및 활용 도구 다양화를 통한 보급 필요)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

상위영역	이슈	하위영역	의미단위
발달장애인 맞춤 교재의 질 높은 구성과 정보에 비해 대상자별 활용에 차이가 있음 (교재의 개별화 및 활용 도구 다양화를 통한 보급 필요)	종 았 단 점	발달장애인 맞춤 교재의 체계적 구성과 유용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적인 구성이 좋음</li> <li>매뉴얼에 설명, 예시, 참고자료, 활동예시 등이 많아서 도움이 됨</li> <li>발달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유용함</li> <li>교재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일괄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교육진행이 가능함</li> <li>활동북의 내용 및 구성이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됨</li> </ul>
	아 쉬 웠 단 점	참여자와 강사에 따라 교재 내용과 적용 난이도가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 수준에 따라 추상적인 용어(개념, 의미 등)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li> <li>한 회기 진행시간이 부족함</li> </ul>
	제 안 사 항	교재의 개별화와 의사소통 도구 다양화를 통한 평생과정설계 확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의 세분화 필요(영역별, 대상자 수준별)</li> <li>교재 개입의 개별화 중요성 인식</li> <li>글자를 모르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 필요</li> <li>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의 확산 필요</li> </ul>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구성이 발달장애인에게 맞춰져 있고 체계적이며 교재에 있는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교재가 아카데미 참여자와 강사 모두에게 내용과 적용이 쉽지만은 않다고 평가하였다. 즉, 참여자와 강사의 특성에 따라 교재의 난이도가 달랐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는 교재의 수준과 의사소통 도구를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재가 매우 유익한 만큼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위 내용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도출된 의미단위를 분석해서 기술한 것이다.

## 1) 발달장애인 맞춤 교재의 체계적 구성과 유용한 정보

### (1) 전체적인 구성이 좋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 교재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직업설계 부분이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고민을 바탕으로 한 것 같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과 사진을 교재에 삽입함으로써 교육 참여자의 이해를 도모하여서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구성은 괜찮았는데..” (A1)

“직업설계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 임가공, 그리고 훈련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을 넣어주셨는데..내용적인 부분은 좋았습니다.” (A7)

### (2) 매뉴얼에 설명, 예시, 참고자료, 활동예시 등이 많아서 도움이 됨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교재에서 활동북 활용 방법에 있어 강사를 위한 매뉴얼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매뉴얼의 예시와 참고자료가 있어 강사가 교재를 활용하는데 접근이 용이했다고 평가하였다.

“저는 매뉴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시도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참고자료

가 있어서 이 부분 찾아보면서 하고, 조금 더 접근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A2)

### (3) 발달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유용함

교재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그림과 사진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 정보들이 다양한 활동과 질문으로 되어 있어 실생활에 응용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그림 및 사진들이 적절하게 배치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데 좋았습니다.” (C1)

“활동북에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질문이 되어 있어 좋습니다.” (B1)

### (4) 교재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일괄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교육진행이 가능함

아카데미 교재가 제공되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유익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활동북과 매뉴얼 없이는 평생과정설계의 용어와 필요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매뉴얼과 활동북을 통해 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유익하게 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평생과정설계를 일대일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매뉴얼과 활동북 교재가 없었을 때에는 당사자 교육 시 용어와 필요성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고 교육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뉴얼과 교재가 제공되어 체계적이고 유익한 교육이 진행된 것 같아 담당자로서 기쁘고 뿌듯합니다.” (B1)

### (5) 활동북의 내용 및 구성이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됨

연구 참여자들은 활동북의 실생활 사진, 영역별 활용 과제, 주요 핵심단어에 대한 정리들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교육 참여의지를 높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평가하였다.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생활 사진, 영역별 활용 과제, 주요 핵심 단어정리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당사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북은 당사자의 교육 참여의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책을 받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매주 수업을 기다리는 당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B1)

## 2) 참여자와 강사에 따라 교재 내용과 적용 난이도가 다름

### (1) 당사자 수준에 따라 추상적인 용어(개념, 의미 등)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어려운 추상적 용어인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명확히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법률용어에서 옹호인, 후견인 등의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에서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실제 교재가 발달장애인에 맞춤 제작 되었을지라도 발달장애인들의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재를 활용할 때 발달장애인 개인별 수준에 맞게 맞춤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옹호인과 후견인에 대해서 발음도 비슷하고, 세 글자이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려하시더라구요. 설명은 이해하시는데, 제시를 하면 누구누구 후견인이요, 누구누구 옹호인이요. 이렇게 엉키더라고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려야 되겠다.” (A6)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보니까 ... 어떤 분들은 잘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분들 일일이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A7)

### (2) 한 회기 진행시간이 부족함

교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시간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이였다. 문화영역의 경우 매우 빠듯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수준에 맞춰 진행하다보니 예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으며 교재 내용의 시간 분량 배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활동 할 때 의외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배분을 잘 못했는지 시



간이 부족했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거의 뻑뻑하게 진행했어요. 쉴틈 없이 했거든요.” (A4)

### 3) 교재의 개별화와 의사소통 도구 다양화를 통한 평생과정설계 확산 필요

#### (1) 교재의 세분화 필요(영역별, 대상자 수준별)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맞춤 교재 내용의 타당성과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언급하였다. 교재가 영역별로 되어 있어 좋지만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한 영역을 1회에 빠듯하게 마쳐야하는 시간 부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는 수준별로 영역을 세분화하여 1회기 교재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거를 좀 1수준의 책을 1년에 끝낼 게 아니니까, 1수준, 2수준, 3수준에 책을 만들면 ... 이 책을 조금 세분화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로 책이 나누어지고 세분화 된다면...” (A7)

#### (2) 교재 개입의 개별화 중요성 인식

아카데미 교재를 활용해 본 실천가들은 개별화 개입만이 발달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강점과 역량을 더 강화시켜주고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즉 개입이 개별화 된 교재구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배웠던 당사자주의, 강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제 사회복지 앞으로 가야하는 의식전환의 계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거를 실천하는 분야에 있어서 막 배우다 보니까 이 분들 한 분 한 분에 개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꿈이 다르기 때문에...” (A7)

#### (3) 글자를 모르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 필요

발달장애인 교육 참여 당사자 중 글자를 모르는 참여자가 있었다. 글씨를 쓰지 못하는 참여자도 활동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다양한 도구가 개발될 것을 제안하였다.

“글씨를 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스티커(O,X, 사진 등)가 마련되면 폭넓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1)

#### (4)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의 확산 필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평생과정설계 프로그램에 만족한 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에 평생과정설계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산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성민에게도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곳에서도 있겠지만 펼쳐지는 마음으로...” (A1)

## 2.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효과: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장애인 자립과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효과

상위영역	이슈	하위영역	의미단위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장애인 자립과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	참여자 변화	참여자의 상호작용 능력 함양을 통해 삶의 활기와 꿈을 찾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인 의사표현 및 참여</li> <li>• 타인에 대한 경청 및 관심</li> <li>• 긍정적 태도와 활기찬 분위기</li> <li>• 꿈, 동기를 찾음</li> </ul>
	지역사회 변화	참여자의 적극적 의사 표현과 자기결정권 성장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지역사회 긍정적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타 직원의 시선 변화</li> <li>• 발달장애인의 꿈 선포식은 발달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한 삶의 뜻대</li> <li>• 발달장애인 자신 스스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권리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필요</li> <li>• 복지관 이용자들의 관심과 격려</li> </ul>

평생과정설계 교재의 목적은 평생과정설계를 함에 있어 인간중심계획의 관점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력을 키워주고, 당사자주의를 핵심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행복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꿈을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재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지 교재활용 효과를 실천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재를 활용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삶의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꿈을 찾게 해주었다고 실천가는 인식하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관심을 보이며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활기찬 분위기를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재의 목적대로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동기를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더불어 실천가들은 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뿌듯해하였다. 다음은 본 주제들에 대한 의미단위들을 구성하고 분석하여 기술한 것이다.

## 1) 참여자의 상호작용 능력 함양을 통해 삶의 활기와 꿈을 찾게 됨

### (1) 자발적인 의사표현 및 참여

‘교재를 활용해 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때’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제작된 교재를 사용한 것은 올해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올해는 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재를 활용한 아카데미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당사자가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행복함을 스스로 표현하는 모습은 아카데미를 통한 교재효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가장 적극적이었고, 손도 가장 많이 드셨고, 꿈도 가장 크게 말씀하셨고, 결혼에 대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 그렇게 행복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A6)

## (2) 타인에 대한 경청 및 관심

아카데미를 통해 변화된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또 다른 모습은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다음 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참여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이는 타인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료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집단 안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만 아니라 동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어떤 것 했을 때 누구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면 ‘누구 이야기였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게 동료에 대해서도 반대로 마음이 가고 있구네! 하고 아카데미하면서 느꼈어요.” (A2)

## (3) 긍정적 태도와 활기찬 분위기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많이 변한 것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야기하며 강조하였다. 또한 1년 동안 개개인의 변화도 뚜렷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활기차고 따뜻해졌다고 하였다. 이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사자 한명 한명이 올해 이렇게 연초에 봤을 때랑 연말에 봤을 때하고 훈련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활기참. 따뜻함. 이런 것을 느낀 것 같아요.” (A1)

## (4) 꿈, 동기를 찾음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의 공동체 속에서 당사자들은 자아를 찾아가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타인과 함께 행복한 삶에서 자립의 의지가 생기고 자신의 꿈을 갖게 되며 적극적인 삶의 동기를 찾게 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효과로 볼 수 있겠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자립하고 싶어하고 꿈이 생기다 보니까 스스로 예전에는 ...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힘들어요. 안 해요. 하던 분이 내 건강을 위해서 다녀야 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시고, 동기를 찾으신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이걸 왜 하지? 라고 했다면 꿈을 찾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 ‘뭐해야 한다.’ 고 하니까 훈련에 더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A7)

## 2) 참여자의 적극적 의사 표현과 자기결정권 성장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지역사회 긍정적 인식 변화

### (1)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타 직원의 시선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교재 활용을 통한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의 시선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발달장애인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그들 스스로 자립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을 바꾼 것은 이미 지역사회인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을 영위하기 시작했음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저희가 꿈 선포식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직원들도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직원들 의식 속에서는 장애인들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A4)

### (2) 발달장애인의 꿈 선포식은 발달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한 삶의 궤대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정상화 개념을 아카데미 꿈 선포식을 통해 실제로 가능하다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발달장애인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꿈은 비장애인과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삶의 궤대로 분석된다.

“비장애하고 장애하고 틀리지 않다는 것을 ... 본인 스스로 본인의 꿈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A8)

### (3) 발달장애인 자신 스스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 필요

실천가들은 꿈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인간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지만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누리도록 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이나 이용자들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표현에 긍정적 시선보다 의외라는 표현을 한 것이 실무자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도록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 저 혼자 약간 통쾌했던 게 있었어요. 한 직원분이 훈련생분들 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자유로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복도 다니면서 본인들 얘기하고 떠돌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 PPP를 하면서 관장님도 오시고 센터장님도 오시고 다들 “괜찮아요.”, “하고 싶은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인들 의사표현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동안 억눌러 있던 게 이제 나온 거죠. ... 그게 맞는데 왜 이제 이걸 이제야 깨달았을까?” (A6)

#### (4) 복지관 이용자의 관심과 격려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때 그들은 행복한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당사자가 꿈을 갖고, 이를 선포하며 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당사자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지만 ‘오고가고 하시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기관이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태도와 환경을 갖게 하는 지역사회 운동의 출발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교재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가 당사자에게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가족과 지역사회영역까지도 그 범위를 더 확장하여 구성할 것을 함축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오고가고 하시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멋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지관에서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저런 기회를 줘서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런 식으로 하면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주어지겠다. 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A1)

## V. 연구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를 제 공해왔던 그간의 시도를 넘어, 발달장애인이 직접 쓰고 사용하는 교재를 개발한 뒤 개 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실천가가 교재의 내용구성 및 활용과 교재 효과를 직접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사회복지실천적 의미를 담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실천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한 결 과, 총 상위주제 2개, 하위범주 5개, 의미단위 19개가 도출되었다. 세부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의 내용구성과 활용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 석한 결과,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하위범주, ‘발달장 애인 맞춤 교재의 체계적 구성과 유용한 정보’가 도출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미단 위로 ‘전체적인 구성이 좋음’과 ‘매뉴얼에 설명, 예시, 참고자료, 활동예시 등이 많아서 도움이 됨’, ‘발달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유용함’, ‘교재 내용 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일괄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교육진행이 가능함’, ‘활동북의 내 용 및 구성이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됨’이 도 출되었다. 아쉬웠던 점을 다루었던 하위범주는 ‘참여자 와 강사에 따라 교재 내용과 적 용 난이도가 다름’이 도출되었다. 이를 지지하는 의미단위는 ‘당사자 수준에 따라 추상 적인 용어(개념, 의미 등)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한 회기 진행시간이 부 족함’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제안사항 하위 범주는 ‘교재의 개별화와 의사소통 도구 다양화를 통한 평생과정설계 확산 필요’였다. 이를 구성하는 의미단위는 ‘교재의 세분화 필요(영역별, 대상자 수준별)’, ‘교재 개입의 개별화 중요성 인식’, ‘글자를 모 르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 필요’,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확산 필요’ 로 도출되었다. 위 의미단위들과 3개의 하위범주를 종합해서 상위주제 ‘발달장애인 맞 춤 교재의 질 높은 구성과 정보에 비해 대상자별 활용에 차이가 있음(교재의 개별화 및 활용 도구 다양화를 통한 보급 필요)’이 도출되었다.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효과(발달장애인 참여자의 인식 및 행동 변 화, 기관 및 지역사회변화)에 대해 요약해 보면,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하위범주로 ‘참

여자의 상호작용 능력 함양을 통해 삶의 활기와 꿈을 찾게 됨'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미단위로 '자발적인 의사표현 및 참여', '타인에 대한 경청 및 관심', '긍정적 태도와 활기찬 분위기', '꿈과 동기를 찾음'이 도출되었다. 기관(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하위범주는 '참여자의 적극적 의사 표현과 자기결정권 성장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지역사회 긍정적 인식 변화'이다. 이를 지지하는 의미단위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타 직원의 시선 변화', '발달장애인의 꿈 선포식은 발달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한 삶의 쏠대', '발달장애인 자신 스스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권리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필요', '복지관 이용자들의 관심과 격려'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미단위들이 구성한 2개의 하위범주들을 통해 도출된 상위주제는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장애인 자립과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남숙(2009)은 정보적 지지, 가족수입, 개인능력 임파워먼트, 자기결정 임파워먼트, 보호자 연령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정보적 지지와 조미연(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당사자 자립을 위한 체계적 정보 제공은 본 연구결과의 '발달장애인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유용함'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재 내용 구성이 타당함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능력 임파워먼트, 자기결정 임파워먼트 요인이 평생계획수립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서남숙(200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 및 참여 증진', '타인에 대한 경청 및 관심 증가', '긍정적 태도와 활기찬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교재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평생계획수립의 중요한 요인을 담고 있어 교재 효과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수진(2016)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지, 행동차원의 개인적, 사회적 자립역량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의 역량 강화라 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소통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꿈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것이 매뉴얼과 활동북 활용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육의 증진된 효과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유수진(2016)



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교육의 효과가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수행했던 기관의 직원과 지역사회 기관 이용자들의 긍정적 인식변화가 있었다. ‘발달장애인도 표현능력이 있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되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통해 기관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결과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여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유수진(2016)의 연구 내용이 본 연구에서 점검한 교재에 반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연구결과 및 논의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재와 관련하여 추후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활동북을 제작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 문장, 글자체, 이미지 등을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모든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인지정도를 고려한 표준화된 콘텐츠가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글자를 모르는 발달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설계 프로그램임에 따라 본 교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향후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의 과제로 제안된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의 확대’에 맞추어, 이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준비가 생애주기 초기부터 필요함에 따라(유수진, 2016) 아동·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천가의 사전 준비 및 슈퍼비전이 매우 중요하다. 실천가는 일관된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특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재에 발달장애인에게서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제시된 경우가 있어, 이를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실천가의 사전준비와 세밀한 지원,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가 프로그램 특성에 맞추어 집단에서 활

용하도록 제작되었으나,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기능과 특성이 다양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실천가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가 집단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화된 지원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의 성장과 변화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참여자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통한 미시적 사회복지실천적 개입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접근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복천 외(2016)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직업, 주거, 건강, 의료, 평생교육 등 각 영역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였다. 8개 영역(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결혼, 직업, 소득재정, 주거, 법)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수행하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특정 소수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얻은 결과라는 점에 한계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지역사회 특징이 반영된 각기 다른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운용 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교재의 내용, 활용,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천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것으로 교재 평가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를 수정·보완하고 다양한 기관에 보급, 확산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급형으로 표준화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미자·강창욱. 2013. “장애유아의 평생계획에 대한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 연구』 4(2): 1-30.
- 김성태. 2017.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이연희·오옥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희·김은혜·인진숙. 2010.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정희·손인봉·이은영. 2009.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주래. 2010.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남연희·송성권. 2005. “정신지체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3): 437-460.
- 남용현·김기룡·송남영. 2017.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민경명. 2016.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 보호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인용. 2011. 『발달장애 자녀의 행복과 미래설계』. 함께 가는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서남숙. 2009. “지적장애자녀를 위한 부모의 평생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서울 경기도 지적장애 부모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5. 『장애인복지현장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평생과정설계』. 서울복지재단.
- 성민사회복지연구소. 2011. 『평생과정설계(PPP, Permanency Process Plan)를 위한 기초연구』.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연구보고회 자료.
- 성민사회복지연구소·성민복지관. 2013. 『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서울: 양서원.
- 성치상·오봉욱. 2011.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리뷰』 16: 5-24.
- 심석순·권오형·장혜림·이은정. 2013. 『성인발달장애인 자녀의 미래설계 실태와 욕구조사』.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엠마우스복지관. 2012. 『사람중심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계획』. 엠마우스복지관.

- 유수진. 2016.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준비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동귀. 2004. 『부모 사후 우리 아이 장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충현복지관.
- 이민희. 2018. “성인발달장애인 평생설계준비지표 개발”. 한신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박사  
학위논문.
- 이복실 · 박주 · 이윤희. 2013.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  
인개발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4. 『장애자녀의 평생계획을 위한 부모교육  
행복 디자인』. 인천광역시 교육청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조미연. 2009. “지적장애인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복천 · 변용찬 · 황주희 · 김미옥 · 박희찬 · 심석순 · 오다은. 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  
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지선 · 이선주 · 손주영. 2009.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평생계획, 양  
육부담감 간의 관계검증”. 『사회복지연구』 40(4): 41-71.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CDDS. 2001. “Person-Centered Planning: Building Partnership and Supporting Choices”.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 Supports Section.
- DADHC. 2008. “Person Centered plan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 Strengthening  
Person Centered Planning i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 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New  
South Wales Government.
- Glesne, C. & Peshkin, A. 1992.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White Plains, NY: Longman.
- Klockars, C. 1977. “Field ethics for the life history. In R. Weppner (Eds.) Street  
ethnography: Selected studies of crime and drug use in natural settings”. (pp.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 MDCH. 2011. “How Person-Centered Planning Works for You”. Michigan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MI.
- Morgan, D. & Krueger, R. 1998. “The Focus Group Kit”. Thousand Oaks, CA: Sage.

- NDA. 2014. "Guidelines on Person Centered Planning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reland". The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 PDD. 2004. "Person Centered Planning Guidebook". Person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Central Alberta Community Board.
- Reiman, J. 1979. "Research subjects, political subjects and human subjects." In C. Klockars. & F. O'Connor. (Eds.). "Deviance and decency: The ethics of research with human subjects". (pp. 33-57). Beverly Hills, CA: Sage.(201-226). Beverly Hills, CA: Sage.
- Ryan, Gery, W. & Bernard, H. Russell. 2000.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orman K. Denzin & Yvonna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769-802). Thousand Oaks: Sage.

Abstract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practitioners on contents,  
us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textbook of the Permanency  
Process Planning Academy for the independence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a community

You, Yonglim\* · Han, Jeongeun\*\*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practitioners understand the contents, us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textbook(the manual and activity book) in practices of the Permanency Process Planning Academy developed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9 practitioners who were the academy instructors or assistant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theme is that: 'There was the textbook usability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actitioners in comparison to a good quality of the textbook content composition and information'. The second theme is that: 'The happy growth of the participa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e academy using the textbook generated that the positive perception of community people including institutional members for the independence and normalization of the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fter discussion, it is suggested to supplement the textbook by developing the standardized contents and curriculum considering the recognition level and life-cycle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Also, it is recommended for practitioners to establish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the independence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academy.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ling, Chodang University(ylyou@cdu.ac.kr)

\*\* Associate Researcher, SungMin Social Welfare Institute of SungMin Welfare Foundation  
(hjeun57@hanmail.net)

Key word: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dependence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rmanency Process Planning Academy, Focus Group Interview

[논문투고일: 2018.12.31, 심사일: 1차-2019.02.08 / 2차-2019.02.18, 심사완료일: 2019.02.22]